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사무엘 하, 세션 18,
사무엘 하 4-6**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하 4-6장 18회입니다.
왕좌로 가는 길은 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 5절; 정복자 다윗,
5장; 방주가 안식처를 찾았습니다(6장).

이번 단원에서는 사무엘하 4장, 5장, 6장을 보겠습니다. 이전 단원을 떠올려 보면
사무엘서의 더 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5장 5장까지입니다.
왕좌에 오르는 길은 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무엘서의 이 부분에는
유혈사태와 폭력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4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아브넬의
죽음을 읽습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은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또한 이스 보셋이
아브넬에 의해 북쪽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아브넬은 자신의 충성심을 다윗에게로 옮기는 과정에 있었고 북쪽 지파들이
다윗에게 넘어올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스 보셋은 지금은 다소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Abner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잃었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장에서 배웠듯이 그들은 David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지금은 놀라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울의 아들에게 약탈대의 우두머리인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바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니 이들은 라몬의 아들들이더라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맡을 인물들이 소개되면서 저자는 4절에서 괄호 안에 멈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두 발 다 절름발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전해졌을 때 그는 다섯 살이었고 그의 유모는 그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급히 가려고 하다가 그는 넘어져 불구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므비보셋이 이야기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이 암살자들의 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갑과 바아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벽에 적힌 글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이 약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아브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쪽 지파들이 이미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브넬은 그들을 다윗에게로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보셋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지하는 베냐민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왕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보셋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낮의 더위 속에서 그곳에 도착했고, 이스보셋은 한낮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밀이니 뭐니를 찾는 것처럼 집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동안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머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우두머리가 있느니라.

자, 우리는 이전에 보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울을 다윗의 적으로 부를 것입니다. 화자는 사울을 다윗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 자신도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카인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을 왕으로 여깁니다. 나의 주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사울을 원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이빗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나요? 그러니 사울은 당신의 적입니다. 그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아들의 머리를 갖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내 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주님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들을 통해 일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미 본 것에 기초하여 이것이 David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르홉과 그의 형 바아나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떤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고 말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느니라. 그는 사무엘하 1장에서 읽은 그 아말렉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식에 대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습니다. 하물며 악인들이 무죄한 자를 그 집에서와 그 침상에서 죽였은즉 내가 이제 그 피를 네 손에서 빼앗아 땅에서 너를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못가에 시체를 매어 두었는데, 마치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인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왕국에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 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좋다. 다윗은 옳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보셋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베냐민 사람들과 사울과 그의 아들 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러한 개인들에 대해 신속하고 신속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두 다윗의 성품과 그의 성실성을 변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에게 감히 손을 들었던 아말렉 사람을 신속하게 심판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뭔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을 살해한 베냐민 사람들을 신속히 처벌합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떻습니까?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아비새는 어떻습니까? 그건 어때? 그리고 바로 이전 장에서 우리는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약간 놀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가족에 대해 신속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다윗의 무능력과 예표가 문제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야곱의 후손인 하나의 대가족의 일원입니다.

옛날에 사울이 우리 왕으로 있을 때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끄신 분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흥미롭게도 왕인 멜렉이 아니라 통치자인 나기드입니다.

그러니 데이빗, 당신은 주님 아래 부섭정이라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당신은 목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기름을 왕 다윗에게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데이빗은 30세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우리는 그가 7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6개월 동안 통치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피로 포장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주제를 요약한다면, 다윗과 같은 그의 백성이 그의 섭리에 의존하고 그들의 소망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과 같이 그의 선택된 종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적. 그리고 이 부분에는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체되고 심지어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보좌로 데려가실 만큼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종들은 그분의 때를 신뢰해야 하며, 신성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그릇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인내심을 갖고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은 그분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동참해야 하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이고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초기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25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는 이 부분에 정복자 다윗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그의 통치를 확고히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주목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었갈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점령했지만, 여부스 족속, 즉 가나안 족속 가운데 원주민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계속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지역에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여부스 사람들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에 맞섰고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당신은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이나 저는 사람도 당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 강해요. 이 요새는 너무도 튼튼해서 시각 장애인이나 절름발이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David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온 성을 함락시켰는데, 그 성은 다윗성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예루살렘, 시온은 왕도이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왕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또한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의 백성을 만나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도시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8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날 다윗은 누구든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려면 수로를 이용하여 다윗의 원수인 절름발이와 맹인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름발이와 맹인이 인용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적을 인용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절름발이와 맹인들이 문자 그대로 이 도시를 방어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사용한 표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 일을 성취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NIV가 해당 구절을 번역하고 있으므로 수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수로를 통해 여부스 성채로 몰래 들어가야 했다는 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이 시점에서 매우 어렵기로 악명 높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에게 접근하라고 읽으며, 히브리어로는 시노르(tsinor) 이다.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 해석은 여부스족을 치려면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tsinor 라는 단어는 파이프를 가리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기 위해 파이프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점입니다. 다윗이 이 입구인 이 수갱을 찾았고, 그들이 저 수갱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중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tsinor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과 동족인 아람어가 있는데, 이는 후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일종의 무기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고리로 치게 하십시오. 어쩌면 누군가를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될 어떤 종류의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주석서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설명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파이프, 즉 기관지를 공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우리를 조롱하고 맹인과 절름발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심지어 눈먼 사람, 심지어 절름발이도 이 도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곳인 그들의 기관지를 공격하십시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석가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수로를 통해 그 도시를 침략했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승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해야 할까요.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히브리어 텍스트 자체의 모호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요새에 거처를 두고 그 곳을 다윗 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주변 지역을 건설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므로 그가 점점 더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도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제 그는 그의 왕국의 중심이 될 왕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왕들도 다윗을 합법적인 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절에서 이에 대해 읽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과 함께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 왕, 곧 두로 왕이 있는데, 그는 다윗을 합법적인 자로 인정하고 심지어 그를 위해 궁전을 짓는 데 재료와 일꾼까지 바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결코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얼마나 대단한가? 그의 역할은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왕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보라, 우리는 하렘 보고서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를 얻습니다. 13절을 보면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후궁들을 더 맞이했습니다.

그에게서 더 많은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얻게 되고 솔로몬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번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밋세바와 결혼할 때까지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며 일종의 요약일 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요, 데이빗은 강해요. 주님은 아내와 자녀로 그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변의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이 장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자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있습니다.

David는 매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전반에 걸쳐 데이비드 주변의 이러한 모호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초의 균열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는 아내를 늘리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아내를 늘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주로 현지 소녀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떼어 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왕과 점점 더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보고서를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문제라고 봅니다. 데이비드가 성취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설명 속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17절에 이르면 여기의 연대기가 실제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으려고 총력을 다하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연대순으로 보면 다윗은 이미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왕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어떻게 요새로 내려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처에 요새가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궁전을 요새까지 가려면 지형을 조금 내려와야 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연대순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하렘 보고서가 훨씬 앞서 나가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다윗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주제와 개념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엄격한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부스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로 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 건설되는 궁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주님의 도움으로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대 근동의 왕과 너무 많이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7절에서 그가 실제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요새는 아둘람입니다. 그가 이전에 있던 요새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지역의 르바임 골짜기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갈 수 있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 지역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해설자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이것이 엄격한 연대순이 아닌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윗을 강력한 전사로 보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흠어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것들을 내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데이빗은 갑니다. 그는 그들을 물리칩니다.

21절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갔습니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상을 가져갔을까요? 내 생각엔 여호와께서 블레셋 신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염려한다면, 역대기 평행선을 보면 그가 그 우상들을 파괴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흠어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곧장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미루나무 수풀 앞에서 그들을 공격하라.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사로서 다윗의 경험에 얼마나 관여하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그가 쓴 시, 사무엘하 22장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빨리 움직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러 네 앞서 나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투의 신학적 차원을 살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는 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그에게 군대가 있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그 군대가 다윗 위의 나무들에서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군대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시리아 비문 조각품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아시리아인들이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로 날아가면 날개 달린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전투로 이끌고 화살을 쏘며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하는 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서는 신들이 군대와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다윗을 이끌고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기브온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주제는 다윗이 새로운 왕이라면 그에게는 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부스의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는 그것을 그의 왕의 도시로 삼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정당성은 또 다른 왕인 히람에 의해 인정받았고, 히람은 왕궁을 짓기 위해 그에게 자재와 인부들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형적인 고대 근동 왕과 조금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왕으로서의 그의 기량, 강력한 전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울과 이스 보셋 과 다윗 으로 인해 이 모든 혼란이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길보아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한 이후로 어느 정도 지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해지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다윗이 다음에 하기로 결정한 것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로 만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그곳에 성전을 세우려면 그곳에 법궤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방주를 꺼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궤는 여호와와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중앙 성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얏제아림 에서 출발했어요 . 그래서 여기 6장에서 바알라라고도 불리는 다윗은 방주에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는 방주가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고 명했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게 될 것의 큰 주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는 의지가 축하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축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그분의 거룩함을 존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함부로 대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늘에 초월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와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를 맞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존중받아야 하며 그의 거룩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6장 1절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 삼만 명을 모으고 그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 바알라로 가서 하나님의 궤 곧 궤라 일컫는 것을 거기서 메어 오니라 궤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와 보좌가 하늘에 있고 무소부재하여도 그 위에 붙어 계시다는 의미가 있느니라 아크와 그는 그 위에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사제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음,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우리가 방주를 운반할 예정이라면 구불구불한 낡은 물건으로 방주를 운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새 수레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에 관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침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언덕 위에 있던 것.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기오가 궤를 실은 새 수레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Achio가 그 앞에 걷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캐스터네츠와 수금과 수금과 소고와 저수조와 제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찬양하였다. 확실히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예배와 감정과 음악은 분명히 주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법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새 수레에 싣고, 이 개인들이 수레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복습을 해야 하고, 법궤가 어떻게 운반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얻기 위해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4절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금 고리 네 개를 부어서 네 발에 달되 한쪽에 고리 두 개, 다른쪽에 고리 두 개로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는 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기둥을 만들 것입니다. 기둥이 고리를 통과할 것 같아요. 네.

14절, 궤 양쪽 고리에 채를 끼워서 궤를 옮기느니라. 채는 이 궤의 고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며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에는 진영을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가리막을 걷어 법궤 위에 씌워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튼튼한 가죽으로 휘장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깔고 채를 꿰어야 합니다.

15절에 이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명 덮기를 마치고 진을 옮길 준비가 된 후에 고핫 자손만 와서 뭘 것이니라 그러나 거룩한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운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하 6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는 새 수레로 운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핫 사람들은 채를 가지고 그것을 운반해야 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모든 축하 행사를 보거나 모든 음악을 듣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걸려 넘어지자 웃사가 손을 뻗어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사진을 찍어보세요.

나는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임무는 방주를 인도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소는 넘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 굴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을 뻗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웃사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NIV는 그의 불경건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정말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그렇게 쓰여 있든 없든 그것은 불손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8절: 여호와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심으로 다윗이 노하였더라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베렛 웃사라 부르는데 오늘날까지 그 곳이 웃사에게 번성하였다. 데이비드는 화가 났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프리랜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이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이 모든 동물을 죽이는 것보다 특히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동물을 지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더 나은 희생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뇨, 아뇨, 아뇨,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에 모셔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그는 발이 차가워진다. 그 사람, 나, 너무 위험해요. 나는 이것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오벧에돔이 생각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고마워요. 그러나 여호와와 그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법궤는 거기 있고, 여호와께서는 법궤가 있는 곳에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궤가 거기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러 갔습니다. 다윗은 그런 축복을 원합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을 원하시며, 자신의 왕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법궤를 메러 갑니다. 여기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13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폴란드 사람들과 함께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의 평행 구절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섯 걸음을 갔을 때, 그는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6단계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시작하고, 해내고, 희생하고, 출시한 후에 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역대상 15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중 많은 부분이 사무엘서에 있고, 역대상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건물들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처소를 예비하고 그 앞에 장막을 쳤더라. 우리에게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같은 곳이군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고 영원히 자기 앞에서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분명히 David는 이제 법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는 서둘러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5장에 설명된 모든 성공은 그의 머리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주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십니다. 그는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역대상 15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궤를 자기가 예비한 곳으로 메어 보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았습니다. 그는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고핫 자손 가운데서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할 개인의 전체 목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아비아달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레위 가족의 우두머리들이다. 너와 네 동료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가 예비한 곳으로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메어 오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은 처음에 너희 레위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David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정해진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그리하여 방주가 도시로 들어옵니다. 데이비드가 축하하고 있어요. 그는 마치 제사장처럼 베옷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다윗은 확실히 레위 제사장직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 알아볼 시간은 없지만 이스라엘 왕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성직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의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제의와 예배 체계를 감독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될 때 예배를 조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인지를 읽습니다.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기서 그 기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은 함성과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이제 다윗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고 그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존중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서 흥미로운 하위 플롯이 전개될 것입니다. 사울의 딸인 미카엘이 정치적인 이유로 팔티엘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다윗의 하렘으로 돌아와 섬기게 된 후에 그녀가 다윗을 너무 호의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부분에서 벗어나 17절에서 그들이 궤를 가져와서 다윗이 쳐 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두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가 이 모든 일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사제들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이 일을 명령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무리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모든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집으로 돌아와 자기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엘이 그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모든 저속한 사람들이 하듯이 그의 종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반쯤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것을 매우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David가 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가엘에게 그것이 주님 앞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자는 주님 앞에서 축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네 아버지나 그의 집 사람보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나는 주님 앞에서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보다 더 무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눈에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신 이 여종들에 의해 나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가엘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이 문제에 대해 마이클의 편을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초반에는 공감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David의 가장 좋은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침내 올바른 방식으로 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잘못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여호와와 중심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마이클은 그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것은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 보셋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베냐민파 군중으로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하여 그러한 종류의 반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야,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 에게는 항상 이런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나는 마이클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마지막 구절을 이해합니다. 나는 그녀가 이런 맥락에서 데이빗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데이빗이 하려는 일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왜 아이를 갖지 않았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데이비드가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었습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구절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마이클이 데이비드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는 화자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야기 속에 그녀의 존재가 단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다윗에 대한 계속적인 반대가 있을 것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실제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매우 중요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하 4-6장 18회입니다. 왕좌로 가는 길은 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 5절; 정복자 다윗, 5장; 방주가 안식처를 찾았습니다(6장).